

호스피스와 가톨릭 교역자들의 교육

충남대학교

조 장 윤

들어가는 말/가톨릭 교역자들과 교육 과정

가톨릭 교역자들이라 하면 사제와 수도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은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다. 그것을 정해진 기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대하여 배우는 기회가 없다. 호스피스처럼 실천적인 교육은 특수 사목 분야에서 주로 익혀야 한다.

호스피스에서 바라는 사목자

사목자들은 오랜 세기를 두고 사람들이 위기와 애도를 겪을 때에 돌봄과 지지와 지도를 베풀었다. 오늘날에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때에 사목자들은 돌봄과 상담을 해야 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사목자들은 그 역할과 위치의 대대로 내려오는 잇점으로 인해 천성적인 위기 상담자들이 된다. 병고와 죽음 그리고 사별의 위기들 가운데에서 사목자들의 현존은 위안과 힘이 된다. “죽는 이와 남는 이를 위하여”의 저자는 사별과 애도와 상례의 절차들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란다*1) 말하고 있는데, 사제들은 출생과 죽음에 관한 예식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임종자들과 가족을 도와줄 수 있다.

병원에서 사목자들은 진료팀을 제외하면 신자들

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누도록 불림을 받은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한다.

사목자가 줄 수 있는 선물들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배려이다. 어느 임종자의 말을 들어보자; “도망가지 말고 곁에 있어줘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저 필요할 때에 제 손을 잡아줄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빅톨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말하면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에 더 빨리 죽었다고 한다. 위기의 순간에 사제들의 현존은 삶의 의미와 실제적인 희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이며 종교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데 유일한 기능을 행한다. 곧 비극의 절정에서도 하느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 말이다.*2)

영적인 돌봄이 - 친밀하게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 죽어가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신념은 호스피스의 원리에서 근본이 된다. 그러나 어떤 호스피스도 죽음의 순간에 입교 권면, 죄의 회개를 강요, 어떤 신앙으로 개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어떤 종파의 대표자도 알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

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자들이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들려 해서는 안 되며, 죽음 후에 기다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환시들로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기 병환은 용서와 치유와 수용의 시기라고 호스피스는 믿는다. 그러나 어떤 환자가 자기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옛날의 종교 전통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청한다면 호스피스는 이러한 요구를 도와줄 수 있다. *3)

*1) *The Hospice Handbook, by Larry Beresford, Little, Brown & Company, 1993. p. 39 릴리 핑커스 지음, 이인복 옮김, 홍익재, 1983. 머리말

*2)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Howard Clinebell, Abingdon Press, 11th printing 1991. PP. 183-4

*3) *The Hospice Handbook, by Larry Beresford, Little, Brown & Company, 1993. p. 39

사제 양성과 호스피스 교육의 현황

사제들이 이수해야 할 내용들은 신학과 철학이다.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철학이 차지하는 분야를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교회 문헌에서는 사제 양성에서 사목 신학의 체험 현장은 본당을 들고 있다. 병원이나 특수한 사목 현장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바치는 착한 목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천거한다. “사제 양성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학문적으로 사목적인 능력과 사목 활동의 기교를 확실하게 갖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과 친교를 이루며 사는 존재 양식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제 양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57)

사제들은 상담학과 현장체험 그리고 특수 사목 사제의 특강 등을 통하여 호스피스 교육에 접한다. 사제 연수회를 통하여 호스피스 분야에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호스피스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호스피스에 종사한 수녀들의 체험담과 활동 내용을 들은 것이 사제들의 호스피스 교육에서 실제적이 도움이 되었다.

사제 양성에서 필요한 호스피스 교육의 새로운 전망

1. 사목 상담학과 호스피스 교육

사목 상담을 배움으로 위기 상담을 익히게 된다. 환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배려하는 훈련을 쌓게 된다. 환자들은 외형적인 종교 실천 외에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일일이 대답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환자들을 지지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안내자와 동료가 되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의 영적인 느낌을 나누어야 한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Louisville의 원목자들의 호스피스에서는 모든 임종환자에게서 발견되는 4가지 근본적인 영적 요구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말 할 필요성, 소속감과 공동체의 대한 필요성, 그리고 희망의 필요성이다. *4

*4) The Hospice Handbook, Larry Beresfor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p. 41

2.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 사목교육)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환자들과 그 가족을 실제

로 만나면서 받는 교육이다. 14주간 동안 매일같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말 그대로 기록하여 지도자(Supervisor)와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사목자 자신들을 더 잘 알며 환자들을 사목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이다. C.P.E.는 마음의 신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며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큰 병원들에서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도 신청한 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한국에서는 수녀 한 분이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교단에서는 적어도 한 unit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군중 신부는 한 unit을 받아야 하고 병원 사목자들은 4 unit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임종자들에 대한 체험을 쌓게 되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이다. 발표자도 이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로부터 뜻밖의 내쫓김을 받았을 때에 당황한 체험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말기 환자가 거의 돌아가실 것으로 예견했으나 이 분이 다시 회복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당신을 찾아와서 기도해 준 것을 그토록 고맙게 여기셨던 기억이 난다. 의식이 없을 때에도 기도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를 체험하였다.

3. 병자 성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

사제가 임종자들을 만나면서 해드리는 것이 봉성체와 병자성사이다. 이 두 가지 성사를 잘 집전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드릴 수 있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라도 성체의 일부를 물에 녹여서 드리면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병자 성사는 특히 영육간의 치유를 기도하는 성사이다. 어떤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삶의 뜻과 위로를 누린다고 한다. 매일이라도 봉성체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해드려야 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유가 필요하다. 하느님과 공동체의 위로와 유대를 표시하는 인수는 모든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믿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병자성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가족들과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임종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서적과 체험을 통하여 배운다.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상담의 방법을 실제로 많이 배우는 것은 사목실천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원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에게 하시는 봉사과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5. 호스피스 팀과의 협력

임종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최대한으로 응하며 종교전파나 다른 어떤 목적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 다른 종교나 여러 교파들과 서로 원만하게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맺는 말

사제들은 일하는 분야가 다양하다. 모든 사제들이 임종자들을 돕는 호스피스에 전문적인 교육과 체험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많으며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그 주요 임무라고 할 때에 호스피스는 사제들이 가장 큰 믿음과 하느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귀중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사제 자신의 영성과 체험이 깊어질수록 호스피스에서도 사제들은 더 합당한 방법으로 임종자들과 함께 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

회가 될 것이다.

임종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사제는 그들로부터 대단히 귀중한 선물을 받는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인생에서 얻은 귀한 선물을 나누어주신다. 깊은 평화와 삶의 결실을 또는 삶과 죽음의 결실을 나누어주고 가시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호스피스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되려면 사제는 임종자들에게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가족들도 임종자들에게 합당한 마음 가짐으로 도와주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The Hospice Handbook a complete Guide, Larry Beresford Foreword by Elisabeth Kubler-Ros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3
- 2) 죽는 이와 남는 이를 위하여, 릴리 핑커스 지음 이인복 옮김, 홍익재, 1983
- 3) The Priest, 가톨릭 사제들을 위한 월간지
- 4) 사목자와 병자, 켄트 리치몬드/ 데이비드 미들턴, 가톨릭 임상 사목 연구소, 1992
- 5)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해답, 퀴블러 로스 지음 이인복 옮김, 홍익재, 1983
- 6) Pastoral Care & Counseling, Howard Clinebell, Abington Press, 1991
- 7) 현대의 사제 양성 - Pastores Dabo Vobis -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3